'코로나19영향' 동남권 청년 정신건강 나빠졌다

동남지방통계청, 2020년 우울감 경험률은 5.9%로 전년보다 1.2%p ↑ 스트레스 인지율 2.0%p 증가. 자살률 청년 인구 10만명당 1.0명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동남권 청년 (15~34세)의 우울감, 스트레스, 자살률 등이 증 가하는 등 정신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 다. 4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한 동남권 청년의 생활상 비교'자 료에 따르면 2020년 동남권 청년의 우울감 경 험률은 5.9%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8.8%로, 2019년(26.8%)

무늬오징어, 변산반도국립

공원 해안서 산란 '기후변화'

따뜻한 수온 등이 원인으로 추정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안에서 모니

터링을 하다가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남방

계 생물종인 무늬오징어(흰꼴뚜기)의 산란을

무늬오징어는 일반적으로 거머리말(잘피)

군락 등 해초류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변산지역에서는 거머리말 군락이 아닌

서해안에서는 무늬오징어가 10여년 전부터

드물게 낚시꾼이나 어부들에 의해 포획되어

왔지만, 대규모 산란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변

산반도국립공원 해안이 바닷물 흐름이 원활하

고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산란에 적합한 장소

정장방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변산

반도국립공원 서해 연안에서 무늬오징어의 산

란은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라며 "변산반

도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

고 다양한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사업들을 추진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조류에 속하는 끈말 군락지에 산란했다.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에 비해 2.0%포인트 늘었다.

자살률도 동남권 청년 인구 10만명당 19.9명 으로, 2019년보다 1.0명 증가했다.

반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흡연율과 고 위험음주율은 각각 4.3%(14.3%→10.0%), 4.5%(45.0%→40.5%)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 화 여파로 '수면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동남 권 청년은 17.7% 늘었다.

더불어 배달음식 먹기와 인스턴트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고 각각 51.6%, 30.6%나 증가했 다. 또 여가시간은 2020년 평일 하루 평균 4.4 시간, 휴일 하루 평균 7.8시간이다. 이는 2019 년에 비해 각각 0.5시간(평일), 1.1시간(휴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8%이며, '영화, 공 연, 여행, 운동 등 여가는 줄었다'는 응답 비율 은 무려 71.2%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0년 동남권 청년의 사회적 고립 도는 21.6%로, 2019년보다 5.7%포인트나 증가

2021년 동남권 청년이 '삶에 만족하는 비 율'은 36.1%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6.1%) 보다 무려 10.0%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 로 동남권 청년의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비경 제 활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21 년 고용률은 48.6%로, 2019년(50.9%)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79만3000명으로, 2019년(76만9000명) 보다 3.0% 늘어났다.

배우 김부선 "이재명 손배소 취하 결심 이유 김건희 녹취록 때문"

3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예정

"고소 취하하고 이재명씨하고 더 이상... 이 재명씨한테도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그만하 자, 이걸로 끝내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당해 서 미안하다고."

영화배우 김부선(62)씨가 이재명(59) 더불 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씨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내 일 중으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이재 명씨에게도 '이걸로 끝내자. 그만하자. 정치적 으로 많이 이용 당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 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의원을 상 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 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 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내용을 남겼던 것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 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 던 부분 등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4년째 진행 중이 다. 지난달 23일 5차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는 데, 김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더이상 진행되지 는 않을 예정이다.

김씨는 소송 취하를 결심한 이유를 묻자 윤 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조심 스레 꺼냈다. 최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 명수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자신을 비방 한 사실을 듣고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 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노무현 장례식장 가자는데 이재명이 김부선한테 거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김부선네 집에 가서 놀았 다는 거 아냐. 그거 사실이거든"이라고 언급했 다.

김씨는 "김 여사는 이재명씨와 똑같았다. 사 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말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만약 이재명씨가 김 여사를 고 소한다면 기꺼이 증인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피해 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른바 '윤핵관'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윤핵관 쪽에서도 연락이 왔었다"며 "'혹시 김 여사에게 전화가 왔느냐'고 물어서 안 왔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를,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하셨다. 윤핵관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 이재명 의원의 민사소송을 취하해주려 한다. 지난 일이고 그는 패자"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추가 참고인 조사 예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 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접 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 스트 대표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 서 "(김 대표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가 있 을 것"이라며 "(1차 조사 당시) 물리적인 접 견 시간 제약 때문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다 조사를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는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접견 시간이 제한돼 있어 오후 6 시께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지난해 가로세

서울경찰청, 지난달 30일 접대 당사자 구치소 접견조사

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가 고발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한나라당(국 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 대 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 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 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 을 당시, 청와대에서 제작한 '박근혜 시계' 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조사 당 시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2013~2014년 기록된 김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 횟수가 11회였으며, 그 중 성접대 2회 (2013년 7월11일, 7월18일)에 대해 진술했 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고발사건 관련, 김 여사가 서면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신기한 등) 내부 규칙은 없고 사정에 따 라서 하는 것"이라며 "(회신이) 곧 오지 않 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후 추가 조 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사자의 답변

을) 받아봐야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두 달 가까이 경찰의 서면조사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이 서울 서 초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택 앞에서 도이 치모터스 수사 촉구 집회를 이어가는 인터 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발한 사건

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 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및 도로점 거 시위와 관련해선 "지하철 운행방해와 도 로점거 등 두 가지 불법행위로 15건, 중복을 제외한 25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피의자 1 명은 출석조사를 했고 추가 피의자들에 대 해 출석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광화문에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 해 밤샘 집회를 주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 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선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곧 출석조 사 예정"이라고 했다. 입건된 피의자는 전 목사는 아니다.

정승호기자

4일 오전 4시 21분께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2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고, 중장비로 잔해물을 치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 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



해남 주택서 불…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주택에선 집주인 A(46)씨가 부엌에 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불로 주택 56㎡가 모두 탔다.

우며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할 방침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